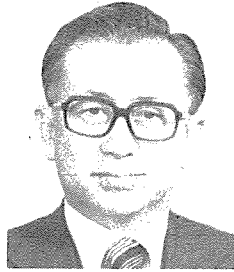


# 「科總」은 育成되어야 한다



崔 相 峯  
(國會議員)

## I

『科總』이라고 略稱되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今年에 創立 15週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에 科總이 걸어온 길을 回顧하면 한마디로 해서 『科總은 無에서 출발하여 有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科總은 1966年 發足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꾸준한 發展을 거듭하여 왔다. 科學技術會館은 허다한 難關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전에 完工을 보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科總은 會員 團體의 育成·支援을 위시한 여러 事業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年間豫算이 現年度에 8억원線을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5年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 科總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歷代會長이 하 任職員의 獻身的인 努力과 會員團體의 積極的인 協助 그리고 政府 및 관계 當局의 支援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特히 初代會長 故 金允基 博士님, 現會長 閔寬植 博士님, 常任顧問 金東一 博士님의 희생과 정성에 의하여 科總이 오늘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 이밖에도 科學技術界 선배, 동료여러분이 科總의 育成을 위하여 貢獻하신 功績에 대하여 감사와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 II

科總은 『國內 및 在外 科學技術團體의 有機的인 團合으로 科學技術의 暢達을 圖謀하고 會員團體를 育成하는 것』을 그 設立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事業을 수행하고 있다. 科總이 수행하고 있는 主要事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科總은 科學技術의 振興方案을 연구 검토하여 政府에 건의하고 있으며 昨年度에는 國家研究課題의 導出과 推進戰略에 관한 研究를 수행하여 政府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科總은 政策建議機構로서의 役割을 다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둘째로 科總은 『과학과 기술』誌(月刊)를 發刊하고 있으며 1980年度에는 韓國科學技術 30年史를 刊行하였고 또 科學技術用語辭典의 編纂事業을 계속 推進하고 있다. 또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를 每年 개최하여 큰 成果를 거두고 있다.

세째로 科總은 會員 學會 및 團體에 대하여 學會誌發刊을 재정적으로 支援하며 學術세미나 및 研究

發表會등의 개최를 支援하고 또 國際機構와의 協力を 支援하는 등 會員團體의 活動을 支援하는 事業을 수행하고 있다. 會員學會의 活動支援이야말로 科總이 해야할 가장 重要한 事業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장차 더욱 置重되어야 할 事業이라고 생각한다. 科總이 우리나라의 學會活動을 先進國 水準으로 끌어 올리는데 觸媒的인 役割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밖에도 科總이 수행해야 할 事業이 많을 것이다. 科總이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政府當局의 劃期的인 財政支援策이 강구되기 바란다.

### III

政府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에 의하면 科學技術投資를 同期間中 과감히 증액하여 研究開發投資의 對 GNP 比率를 현재의 0.8%선에서부터 86년에 2.0%선까지 끌어 올리기로 되어 있다. 이는 2.5배의 높은 伸張率을 의미한다. 政府의 第5次 5個年計劃에 따르면 GNP 자체가 80年度에 35兆원(1人당 GNP 1,500 弗)이던 것이 86年度에는 80年度 不變價格으로 하여 53.7兆원(1人당 GNP 2,170 弗)에 달하게 되어 약 1.5배의 伸張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科學技術投資額의 絶對値는 무려 4배에 가까운 伸張을 보여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過去 그 어느 때에도 볼수 없었던 急激한 伸張率이다. 이렇게 과감한 科學技術投資計劃은 많은 國民의 관심과 共感을 받고 있다. 政府의 이計劃이 차질없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科學技術의 革新을 위하여는 과감한 投資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이 投資의 效率性이라고 생각한다. 즉 效率的인 投資方案이 검토되면서 投資의 擴大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科學技術投資의 效率的인 方案을 樹立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衆智를 모아서 가장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方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要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 ▲ 科學技術投資의 우선순위 결정과 政府·國民의 投資比率 조정
- ▲ 民間의 科學技術投資를 誘引하는 施策의 수립
- ▲ 科學技術投資의 內實化
- ▲ 科學技術人力의 養成 및 活用

이 밖에도 科學技術投資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다른 많은 要素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檢討에는 政府當局者는 물론이고 學界, 產業界, 研究機關 등 科學技術 業務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意見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60餘의 學會와 團體를 會員으로 갖고 있는 科總이 科學技術 投資方案을 수립하여 政府에 建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 IV

科總은 160餘 會員團體의 聯合體로서 科學技術暢達의 막중한 責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科總은 우리 나라의 科學技術을 장차 어떤 方向으로 끌고 갈 것이며 또 그의 振興을 위하여 어떤 事業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從前의 事業을 하나 하나 再評價하면서 必要하다면 과감한 修正도 斷行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科總은 科學技術界 人士들의 代弁자로서 우리나라의 未來의 科學技術에 관한 비전을 國民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政府當局이 科總의 育成과 財政支援에 관하여 劃期的인 施策을 마련하기 바란다.